

'탄탄한 연기력 인정받다'... '빛' 보는 무명배우들



세밀 연예계 달구는 '아이콘'...예능·영화·드라마서 활약 이지숙, 평양무용단 리얼 연기·박해수, 실력으로 존재감 부각

"무명배우에서 '무명'만 빼면 배우가 됩니까"
케이블채널 tvN 예능 '김무명을 찾아라'에 출연한 무명(無名) 배우 이지숙의 말이다. 그는 특정 직업군의 일원으로 연기하는 무명 배우들을 찾아내는 콘셉트를 가진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 평양무용예술단원인 양 연기해 패널들을 감쪽같이 속였

다. 탈북 사연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던 이지숙을 보며 처음부터 "이지숙은 예술단원이 맞다"고 확신했던 패널들은 허를 내들었다. 탄탄한 연기력의 힘이다.
이처럼 무명 배우들이 세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화제를 모은 영화, 드라마, 예능 속에서 두루 활약을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배우는 연기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한데, 외모나 인지도순으로 배우의 가치를 매기는 풍토 속에 비친 한줄기 빛이라 할 만하다.
'19금 영화' 입에도 687만 관객을 모으며 올해 극장가의 최고 화제작으로 떠오른 '범죄도시'. 이 영화는 마동석, 윤계상이라는 두 주연배우

못지않게 견고한 연기력으로 무장한 무명 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와 함께 실감나는 형사 연기를 펼친 홍기준, 허동원을 비롯해 하얼빈 출신 조폭 장천(윤계상)의 수하로 등장한 진신규(가운데), 김성규의 열연이 돋보였다.
특히 진신규, 김성규가 각각 연기한 위성택, 양태의 능수능란한 연변 사투리와 중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섬뜩한 조폭 연기를 본 관객들은 "실제 조폭배우를 쓴 것 아니냐"는 소감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진신규는 지난달 말 열린 '제38회 청룡영화상'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진신규

는 수상 직후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름이 알려진 것도, 영화상 후보로 오른 것도 처음인데 큰 상을 받았다"며 "2년간 연기를 했는데 너무 큰 보수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이것을 빨리 나눠드리고 저는 원래 제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TV로 눈을 돌리면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이끌고 있는 배우들의 존재감이 크게 다가온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제혁 역을 맡은 박해수(오른쪽)는 연극계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아직 대중에게 낯선 배우다. 처음에 그가 '응답하라 시리즈로 유명한 신원호 PD 차기작의 주인공'으로 발탁됐을 때 의아해하던 이들도

막상 드라마가 시작되자 그의 빈틈 없는 연기력에 가뭇하던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 같은 감방에 수감된 제소자 역을 맡은 김성철, 정재성, 이호철, 안정환 역시 여러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비쳤으나 이름은 생소한 무명 배우들이다.
tvN 관계자는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김무명을 찾아라' 모두 그동안 대중의 관심사에서 비껴있던 실력과 배우들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름값 높은 스타의 품격이 제자리를 깔았이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새 얼굴이 등장하고 대중의 주목받는 것은 업계 신선함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베일 벗은 '강식당', '윤식당' 패러디물 그 이상이었다



베일을 벗은 '강식당'이 '윤식당'과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8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외전 - 강식당' (이하 '강식당')이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8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야에 따르면 '강식당'의 시청률은 전국 기준 5.4%, 수도권 기준 6.1%를 기록했다.
'강식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 전파를 탄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신서유기 4' 촬영 당시 멤버들이 소원으로 제작진들에게 약속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이수근은 '강식당'을 하자고 제안했고 제작진이 진행된 것.
그만큼 방영전부터 '강식당'은 '윤식당'과 다른 어떤 매력을 드러내지 못한 공중중을 키웠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강식당'은 그만의 색깔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했다.

▲ '강식당' 영입에 앞선 만반의 준비

'강식당' 오픈에 앞서 멤버 강호동, 안재현, 이수근, 송민호, 은지원 등 보강증을 발급받으며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또한 강호동과 안재현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에게 '강호동가스'와 '오르라이스' 요리 과정을 배웠다. 두 사람은 사뭇 진지한 표정과 태도로 입맛과 연습도 계을

리하지 않았다.
음료부를 맡은 은지원과 송민호는 직접 바리스타 전문가를 찾아가 카페라떼, 비엔나커피 제조 방법을 익혔다. 이들 역시 진중한 태도로 입했다. 또한 멤버들은 테이블에 앉은 제작진 앞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예행 연습을 펼치기도 했다.

▲ '강식당' 맞이하는 진중함

강호동은 촬영에 앞서 제작진과 회식 때 '강식당'을 시작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난 그동안 먹는 것만 한 사람이다.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강식당'인데 아무것도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영석 PD가 "형이 메인 셰프다"라고 말했다고 강호동은 "답답한 소리 한다"라며 답했다. 웃음을 안긴 동시에, 메인 셰프가 될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묻어오는 대목이었다.
또한 멤버들이 메뉴와 '강식당' 운영에 대한 고민을 나눌 때,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 '신서유기'에서 보여줬던 웃음을 찾기 힘든 순간도 있었다. 제주도 숙소에 입성한 멤버들은 '강식당' 운영과 메뉴 선정,

이유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강호동의 말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진파를 타 눈길을 끌었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고민을 나누는 모습은 예능보다 다큐에 가까웠다.

▲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메뉴 '강호동가스'

강식당의 메뉴는 두 가지다. 강호동가스와 오르라이스. 특히 어머니 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강호동가스는 방영 전 예고편을 통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호동가스는 일반적인 돈가스에 쓰이는 고기 두께보다 세 배 정도 두꺼운 두께를 자랑했고 고기감자로 두들겨 썰어졌다.
고기기를 펴는 시간만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이를 가볍게 볶던 강호동은 지치기도 했다. 완성된 강호동가스 크기를 본 안재현은 "납작한 마리 같다"며 놀렸다. 이육고 손님 앞에 공개된 강호동가스는 "맛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기대에 부응한 메뉴였다.
'강식당' 첫 방송은 그간 안졌던 많은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색깔 있는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 대중들을 충분히 TV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석 같은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정상회담' 시즌2, 무엇을 바꿔야 할까?

'비정상회담'이 시즌2를 종영하고 3~4개월의 재정보 시간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즌에는 어떤 변화가 이뤄질 것인가?
답담 PD가 바뀌면 외국인 패널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시즌2에도 PD가 한차례 바뀌면서 유세윤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는 반응도 나왔고 언어유희라는 의견이 많아졌다.
오히려 후반부에서는 짝막하게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논지 방향을 제시하는 성시경이 MC 역할로는 더 잘 어울린다. 전현무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멘트 성격과 수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MC진의 역할중 예능적인 재미를 준다는 부분은 비정상회담에 굳이 웃음과 가벼움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비정상회담' 에디션자들은 역사, 문화, 사건 등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 외국인 패널들이 자신의 견해와 후반기 프로그램 펼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예능을 보려는 게 아니다. 그것만 해도 '알쓸신잡' 처럼 또 다른 종류의 재미가 만들어지므로 인위적으로 가벼워질 필요가 없다. '비정상회담' 시즌2 운용에는 이 부분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문화적인 시가지 인식 외에도 지역분쟁, 혁명 등 시사적인 주제와 쟁점 이슈, 논쟁거리 등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때로는 진지한 토론도 하면서 유세윤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프로그램 성격이 바뀌면서 유세윤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는 반응도 나왔고 언어유희라는 의견이 많아졌다.
오히려 후반부에서는 짝막하게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논지 방향을 제시하는 성시경이 MC 역할로는 더 잘 어울린다. 전현무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멘트 성격과 수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MC진의 역할중 예능적인 재미를 준다는 부분은 비정상회담에 굳이 웃음과 가벼움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비정상회담' 에디션자들은 역사, 문화, 사건 등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 외국인 패널들이 자신의 견해와 후반기 프로그램 펼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예능을 보려는 게 아니다. 그것만 해도 '알쓸신잡' 처럼 또 다른 종류의 재미가 만들어지므로 인위적으로 가벼워질 필요가 없다. '비정상회담' 시즌2 운용에는 이 부분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겟아웃', 올해 최고의 영화 이유

할리우드 영화 '겟 아웃(Get Out)'이 이구동성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히고 있다.
'겟아웃'은 영국의 대표 영화 매체 엠파이어 매거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역시 영국의 영화평론지 사이트 엔사운드에서도 '겟 아웃'을 1위로 꼽았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문화지 롤링

스톤도 '겟 아웃'을 올해 최고의 영화 10편 중 하나로 선정했고, 전미비평가협회가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겟 아웃'은 여러 유력 매체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영화'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쯤되면 '겟 아웃'의 연출자인 조던 필레 감독은 단연 올해의 발견이라고 할 만하다. 조던 필레 감독에게는 이 영화가 첫 번째 스크린 도전작으로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공포에도 도전해 큰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북미지역에서 개봉한 '겟 아웃'은 제작비 450만달러의 저예산 영화. 2017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흥행에 성공했다. 제작비의 40배 이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겟 아웃'의 성공에는 인종차별

코드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흑인 남자 크리스(나일 칼푸어)가 연인인 백인 여자 친구 로즈(엘리슨 윌리엄스)의 부모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일 그였다.
로즈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크리스를 반기는 듯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가득 풍기고 결국 진인한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인종차별 문제가 깔린 공포를 기본으로 코미디를 곁들였다

코드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흑인 남자 크리스(나일 칼푸어)가 연인인 백인 여자 친구 로즈(엘리슨 윌리엄스)의 부모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일 그였다.
로즈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크리스를 반기는 듯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가득 풍기고 결국 진인한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인종차별 문제가 깔린 공포를 기본으로 코미디를 곁들였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음력 10월 20일)



▶**쥐띠** 36년생 양보의 미덕으로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4년생 꿈을 접지마라.
▶**소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말띠**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원숭이띠**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돼지띠**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개띠** 41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7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양띠** 42년생 욕심을 버려라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말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황소띠**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염소띠** 33년생 출입을 삼가라.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토끼띠**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방을 쥐가 듣는다.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뱀띠** 35년생 미련을 버려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 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